

코로나 19가 가져온 젠더 불평등의 심화

강채희(고려지부)

전염병은 성별, 인종 그리고 계급을 가리지 않는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등장은 우리가 각자의 근본적인 취약성을 깨닫게 만들었다. 코로나19는 모두에게 평등하다. 그러나 전염병이 가져오는 사회적 변화가 모두에게 평등하게 작동하는가? 그렇지 않다. 코로나19는 지금까지 비가시화되었던 사회적 불평등 문제에 기생하여 불평등한 구조를 더욱 심화시킨다. 젠더 불평등 역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증폭시킨 주요한 문제 중 하나이다. "위기는 언제나 성차별을 심화시킨다(Crisis always exacerbates gender inequality)."는 유엔여성기구(UN Women)의 마리아 홀츠버그 인도주의 및 재난위험 특보의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는 개발도상국과 저개발국 여성들의 교육 기회를 앗아가 성별에 따른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유엔아동기금(UNICEF)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약 2억 2천 2백만 명에 달하는 여학생들의 교육을 중단시켰다. 가계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의 교육 중단이 우선적인 선택지로 등장하기 때문이다. 여아 교육에 대한 낮은 인식이 여학생들의 안정적인 교육을 저해하는 원인이 된 것이다. 재난 상황에서 여성들에게 가중된 가사 노동의 부담 역시 여아들이 교육을 지속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었다. 원거리 교육을 위한 인터넷 환경의 미비와 디지털 장비에 대한 여성 청소년의 낮은 접근성 역시 문제 상황을 심화시킨다.



여학생들이 학교를 떠나는 것은 학습 기회의 박탈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학교는 교육의 공간인 동시에 보호의 공간으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벗어난 아이들은 다양한 유형의 폭력에 쉽게 노출된다. 최소한의 보호가 부족한 단절된 상태가 여아들이 성적 폭력, 가정 폭력 그리고 조혼 등의 물리적·정신적 폭력을 마주할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실제로 유엔 인구기금(UNFPA)은 학교 폐쇄가 지속되는 매 3개월마다 전세계적으로 약 1,500만 건의 성적

폭력이 늘어날 것으로 진단했다. 현 문제 상황에 대한 전망을 악화시키는 사실은 학교를 떠난 여학생들의 복귀를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이다. 에볼라 바이러스 유행 당시 기니 지역 여학생의 재등록률은 남학생의 75%에 불과했으며, 이는 코로나19의 경우에도 유사할 것이라 예측된다.

한편 코로나 19의 장기화는 돌봄 노동에 대한 여성의 책임을 가중시키는 결과 역시 초래하게 된다. 돌봄 노동의 책임이 여성에게 불균형적으로 부과되는 상황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등 공적 돌봄 체계가 마비됨에 따라 돌봄의 역할이 가정이라는 사적 공간으로 온전히 옮겨갔기 때문이다. 유엔여성기구(UN Women)의 정책 보고서는 팬데믹 이전 여성이 남성에 비해 약 3배 이상의 돌봄 노동을 수행하던 불균형적인 상황이 코로나19로 인해 보다 심화되었음을 밝혔다. 국제노동기구(ILO) 역시 돌봄 노동의 현실과 그 중요성을 망각하는 사회적 문제를 지적했다. 이는 감정과 몸의 쇠진, 사회적 보호의 약화 그리고 젠더 역할 고착화 등의 측면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돌봄 노동의 증가는 여성 고용 불안정성의 증가와 맞물려 여성들의 임금 노동 이탈을 촉진시킨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된다. 부부 모두가 경제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돌봄의 공백을 메우는 역할은 주로 여성들에게 할당되기 때문이다. 동시에 취약한 일자리에 집중된 저소득층 여성의 해고와 강제 휴직 또한 증가했다. 한국의 경우 2020년 3월 한 달 동안 주요 요양, 돌봄, 급식, 청소, 서비스 분야에 종사하는 40~60대 중년 여성의 해고가 50~60퍼센트 이상 증가했으며, 미국 역시 9월 기준 85만 5000명의 여성이 일자리를 잃었다. 이는 남성 실직의 4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또한, 맥킨지 글로벌 연구소(McKinsey Global Institute)는 COVID-19로 인한 여성 실업률은 남성 실업률보다 약 1.8배 높을 것이라 예측했다. 코로나로 인한 실직이 장기화와 일터 복귀의 가능성이 반비례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여성 및 사회 취약 계층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 마련은 국제 사회의 시급한 과제가 분명하다.

이처럼 코로나19의 장기화는 여성 교육의 중단, 여성의 가사와 돌봄 노동의 급증 그리고 여성 고용의 불안정화라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는 새로운 것이 아니며 팬데믹 이전에 사회에서 젠더와 계급 불평등의 재생산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문제 상황이 최소화된 대안적 사회 구성을 위해서는 자신의 위치에서 밀려난 사람들의 복귀와 회복을 목표로 하는 장기적이고 제도적인 개입과 동시에 젠더 불평등 문제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고민이 요구된다. 교육 불평등 해결을 위해서는 교육 분야는 물론 정부 및 국제 협력자 등 여러 부문에 걸친 공조 아래 여학생의 안전과 보호를 우선 순위로 하는 정책의 모색이 필요하다. 노동 문제 역시 공적 돌봄 체계 보완, 불균형적인 돌봄 노동의 해소 그리고 여성 노동자의 취약한 고용 상태 개선 등의 노력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의 다섯 번째 목표인 성평등(Gender Equality)의 달성을 위해서는 ‘뉴 노멀’이라는 단어의 사용에 앞서 무엇이 ‘노멀’이며 어떠한 방향으로 새로워질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출처

Ewing-Nelson, C. (2020, October). Four times more women than men dropped out of the labor force in September. National Women's Law Center.

Michael Madowitz, Alex Rowell, and Katie Hamm, "Calculating the Hidden Cost of Interrupting a Career for Child Care" (Washington: Center for American Progress,

2016)

UN Women, Policy Brief: The Impact of COVID-19 on Women, 9 APRIL 2020

<https://www.bbc.com/news/world-asia-51705199>

https://www.washingtonpost.com/world/africa/coronavirus-girls-education-west-africa/2020/06/12/84a23c44-a5a8-11ea-b619-3f9133bbb482_story.html

https://www.unicef.org/eap/stories/building-back-equal-girls-education#_ftnref1

<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962630.html#csidxea720cfff4a2206898565a750edb263>

<https://www.mckinsey.com/featured-insights/future-of-work/covid-19-and-gender-equality-countering-the-regressive-effects>

<https://thediplomat.com/2020/11/covid-19-leaves-millions-of-girls-at-risk-of-school-dropout-in-asia-pacific/>

https://www.ilo.org/global/about-the-ilo/newsroom/news/WCMS_749398

이미지 출처

UNICEF/UN0248679/Nooran